

## 2016년 6월 사역 소식지

한국의 여름은 뜨겁게 일찍 찾아온 것 같은데, 이곳 중앙아시아의 뜨거운 여름은 많은 비를 내려준 봄비 덕분에 늦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목축을 주로 하는 이곳 키르기스스탄의 산들은 예년과 달리 푸르고 푸르게 덮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축들을 위한 풀들이 풍성하게 되었지만, 조금 습해진 탓에 예전에 없었던 병충해들로 과실들이 풍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자연은 지구촌의 어느 한 지역에만 비를 내리고, 해를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만족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을 통해서도 다양한 삶과 사역 가운데 후원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1. Good Partner 사역

**알라토 그룹홈(보육원)**의 12명의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한 학년을 잘 마치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네 교회에서 연결된 캠프장에 가게 되어 6일 간의 여행을 꿈꾸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작은 마을에 카리스마틱한 교회이기는 하지만 열정 많은 교회가 있어서 이곳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의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약



1시간 가량 동네 사람들과도 친밀하게 만드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섬

기고 있습니다. 저희 보육원 아이들 중에 큰 아이들(6학년)이 키르기스 춤을 배워서 이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에게 귀한 믿음도 더욱 크게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동안 건조로 키우던 송아지 두 마리는 높은 고원지대의 목축인들에게 위탁하여 가을까지 길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른 염소와 토끼, 닭과 거위는 집 마당에서 키우면서 새끼를 내면서 계란과 고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소망아카데미**는 책임 사역자인 나판 선생님네 교회 건물이 현재 교회로 등록을 기다리느라 예배 장소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소망아카데미의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학원등록을 추진했는데, 법적으로 잘 해결되어서 현재 학원 건물로 등록되어 학생들의 특별한 활동과 발표 등의 장소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학이 되어 수업은 없지만, 7월에 한국어 캠프를 하게 되어 이를 통해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도 되고 교회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올 여름에도 한국의 교회에서 방문하여 한국어 캠프를 운영해 주기로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현지 교회 사역

섬기고 있는 현지교회의 리더들은 지난 1-2년동안 소그룹 활성화와 개인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리더들이 이웃나라 카자흐스탄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셀교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와 교회에 적

용하고 있어서 금요 소그룹이 조금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담임 전도사 벡뚜르와 세 명의 핵심 리더들의 협력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젊은 부부(울란 & 아슬)는 저희 단체 사역자들의 비자 수속 업무와 필요한 행정서류 작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이들 부부의 섬김으로 중요한 서류작업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에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하여서, 가끔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는 소그룹 모임도 있어서 부모님들은 자주(?) 모이는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삶과 신앙의 조화를 이루려 하는 신실한 모습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지난 주에는 교회의 청년 지도자 '바쿿'이 결혼을 하게 되어 교회에서 모든 예배와 잔치를 준비하여 은혜 중에 잘 치렀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지만 예배, 주례, 음식과 장식 등에 함께 참여하여 큰 잔치를 치르면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됨으로 섬김과 헌신, 희생을 통한 보람과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스हत은 재래시장의 옷 수선집 운영에 늘 바쁘지만, 틈틈이 신학공부를 해 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일과 공부를 병행하여 학기에 두 번씩 두 주간 이루어지는 집중강의와 과제물들을 성실하게 하여서 지



난 주에 있었던 연합신학교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게 되었습니다. 반대하시던 아버지도 이제는 신학교 과정 집중강의를 듣기로 해서 어머니와 함께 멀리 탈라스라는 고향에서 강의가 있는 주에는 6시간 동안 차를 타고 달려와 나스हत의 좁은 집에서 함께 지내며 강의를 듣고 내려 가곤 합니다.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신학 강의를 들으며 지역 마을에서는 가정교회 그룹의 리더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지요. 사실 시골지역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 공동체적인 불평등과 고립을 각오해야 합니다. 물론 비쉬켈과 같은 도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키르기즈인들만 사는 대부분의 시골마을에서는 그리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동네에서 있는 결혼, 장례 등의 큰 행사때에 함께 협력하여 잔치를 치르는 일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시 매장지 문제를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스쿨 지역에서 경찰 공무원을 하다가 늦게 신학공부를 하고 마을에서 가정교회 지도자로 섬기는 코룸두 바이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매장지를 주지 않아서 몇 마을 떨어진 곳의 러시아 사람들 공동묘지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물론 이분과 함께 신앙을 나누는 분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는 이들의 신앙으로는 매장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는 삶에서 다양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스हत이 교회의 좋은 리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과 고향 마을에 귀한 기독교인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중앙아시아 M전략 연구소

지난 봄에 있었던 '제2차 이슬람포럼'은 저희 연구소의 주관으로 약 40여명이 모여 귀한 강의와 발제, 그리고 논찬을 통해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과 터키 이슬람을 비교하며 함께 연구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사로 오셨던 교수님과 터키 사역자 두 분의 강의와 교제로 이곳 키르기즈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실제적인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N.T. Wright의 에브리원 주석 번역 작업**은 마태, 요한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이 지난 연합신학교 졸업식에 맞추어 출간되었습니다. 기초번역 후에 감수 작업만 거의 1년 반, 그리고 마지막 편집과 재편집 과정을 거쳐 다시 1년이 지나 이제야 출간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수 작업을 한 것이라 더욱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 신약 주석 시리즈들이 계획대로 13권 전체가 키르기즈어로 완역되어 이곳 키르기즈 교회의 많은 분들에게 첫 번째 자국어 주석 시리즈의 완성을 함께 기뻐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도서들의 보급도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판비 원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거의 실제적인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사역자들이 사서 키르기즈 리더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성경공부에 활용하는 형태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출판사역은 운영의 자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즈 언어로 번역되는 문서사역에는 현지 사역자들도 그렇고 외국인 사역자들의 참여도가 거의 낮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빈 교수와 저, 그리고 캐나다 사역자 일레인에게 같은 비전을 주셔서 협력하여 이 사역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안에 나머지 10권이 완역되어 출간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가족들 스케치

저희 아이들은 이번 학기를 잘 마치고 여름에 한국기독학생회(IVF)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와 신앙훈련, 리더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사역하던 곳에서 대학생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니 마음이 새롭고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신앙훈련을 받고 나서는 이곳 저희가 있는 곳으로 와서, 한국어 캠프의 통역자등으로 섬기면서 지내다가 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안식년이나 안식월로 한국에 나가는 것보다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으로 나간 아이들이 다시 현지로 돌아와서 쉬기도 하고 현지어로 섬기게 되는 일도 있어서 아이들도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늘 따스한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동역으로 저희가 이곳 중앙아시아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헤브론정, 엘레나김 드림